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사업 현황과 발전방향

김상열(포스코인터내셔널 식량자원개발그룹 부장)*

1. 서론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와 영토분쟁 사태 발생 이후 경제의 불안정이 지속되었다. 경제성장률은 2015년 마이너스 9.8%까지 하락하였고, 소비자물가도 43%나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6년부터 경제성장률이 2%대로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도 10% 대로 하락하는 등 경제가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옥수수, 밀, 대두 등 주요곡물의 4대 수출국으로 최근 세계 곡물 시장에서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곡물자급률이 22%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세계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필요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큰 결실을 보지 못했다.

최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우크라이나에 곡물터미널을 인수함으로써 곡물유통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곡물터미널 확보는 국가식량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곡물터미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폭 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최근의 국제곡물시장 동향과 주요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곡물생산을 비롯한 곡물교역 여건을 살펴보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곡물유통분야 진출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srkim2@poscointl.com

2. 국제 곡물 시장의 특징

2.1. 곡물 시장 수급 동향

옥수수, 밀, 대두 3대 주요곡물의 세계 생산, 소비 및 교역량 추이를 보면, 2009년 이후 생산량은 연평균 2.4%씩 증가한 반면 교역량은 5.1%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역량이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곡물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곡물 소비량 증가는 인구증가와 사료용 곡물소비 증가 등 식용이나 농업관련 소비외에 바이오 디젤 등 비농업분야 수요증대와 관련된다.

표 1. 3대 곡물 (옥수수, 밀, 대두)의 수급 동향

단위: 천톤, %

구분	09/10	18/19	연평균 성장률(2009-2019)
생산량	1,782,973	2,200,824	2.37
소비량	1,150,902	1,445,988	2.57
교역량	311,603	488,731	5.13

자료: USDA

옥수수, 밀, 대두의 주요생산 및 수출국 비중을 보면, 상위 5개국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량 기준 상위 5개국의 비중은 생산이나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옥수수와 밀의 경우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국가 간의 교역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표 2. 3대 곡물의 생산, 수출 및 수입에 대한 상위 5개국의 집중도

품목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5개국 비중 : 75%	5개국 비중 : 91%	5개국 비중 : 46%
옥수수	미국 (33%) 중국 (23%) 브라질 (9%) EU (6%) 아르헨티나 (4%)	미국 (35%) 브라질 (18%) 아르헨티나 (18%) 우크라이나 (18%) 러시아 (2%)	EU(14%) 멕시코 (10%) 일본 (10%) 한국 (6%) 베트남 (6%)

품목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밀	5개국 비중 : 68%	5개국 비중 : 70%	5개국 비중 : 25%
	EU (19%) 중국 (18%) 인도 (14%) 러시아 (10%) 미국 (7%)	러시아 (21%) 미국 (14%) 캐나다 (13%) EU(13%) 우크라이나 (9%)	이집트 (7%) 인도네시아 (6%) 브라질 (4%) 알제리 (4%) 필리핀 (4%)
대두	5개국 비중 : 88%	5개국 비중 : 96%	5개국 비중 : 77%
	미국 (34%) 브라질 (32%) 아르헨티나 (15%) 중국 (4%) 인도 (3%)	브라질 (52%) 미국 (33%) 아르헨티나 (4%) 파라과이 (4%) 캐나다 (3%)	중국 (58%) EU (10%) 아르헨티나 (4%) 멕시코 (3%) 이집트 (2%)

자료: USDA

2.2. 주요 메이저중심의 독과점 구조

국제곡물의 교역량 증대로 곡물을 취급하는 다양한 영역의 많은 곡물회사가 출현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농가로부터 곡물을 매집하는 업체, 내륙운송/저장 분야의 물류업체, 무자산 기반의 에프오비(FOB)/씨엔에프(CNF) 트레이더 등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곡물산업의 큰 손은 약 1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소위 4대 메이저(Major) 또는 에이비씨디(ABCD)로 불리는 에이디엠(ADM, Archer Daniels Midland), 병기(Bunge), 카길(Cargill), 루이스드레이푸스(LDC, Louis Dreyfus)와 약 40~50년 전 북미 곡물 유통 시장부터 진입을 한 마루베니(Marubeni), 이토추(Itochu)와 같은 일본상사, 그리고 최근 인수 합병을 통해 그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중국 국영회사인 코프코(COFCO)가 있다.

대형 곡물 기업들은 곡물 산업의 밸류 체인(Value Chain)에서 업 스트림(Upstream)과 다운 스트림(Down Stream)에 대한 균형 있는 자산투자 등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Portfolio) 안정화와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엘니뇨, 라니냐와 같은 이상 기후로 인한 수급 변동성이 매년 커져가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그들의 자산 투자를 기반으로 한 시장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시장환경 분석

3.1.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확보의 의의

3.1.1. 국가식량안보에 기여

우리나라의 2017년 식량자급률(사료곡물 포함)은 22%에 불과하여 매년 1,500만 톤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5위 곡물수입국이다. 따라서 식량 위기 시 필요한 곡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시장의 9%, 옥수수시장의 18%를 차지하는 세계 5위 곡물수출국으로서, 해당국으로부터 식량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3.1.2. 해외곡물시장 진출

2008년과 2010년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2011년 aT가 민간합작으로 설립한 곡물수입유통회사(aT그레인)가 2014년 사업을 철수하면서 식량조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한계를 보였다. 늦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민간기업이 곡물터미널을 구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과 같이 민간기업의 해외곡물메이저로 진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최근 곡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일본 기업들이 신흥 곡물메이저로 부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이들 신흥곡물메이저 국가의 진출이 적은 국가로, 이들 지역에서의 곡물 취급량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3.1.3. 곡물수출 전진기지 구축

곡물의 value chain에서 수출을 위해서 생산-저장-유통(수송)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마지막 단계인 수출에서 터미널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필요한 곡물을 사전에 저장·보관하고, 수출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 터미널을 확보하여 물량을 조절하고, 시장변동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곡물

시장이 불안정하여 곡물조달이 쉽지 않을 경우, 자체 곡물터미널을 확보하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물량을 원활히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어, 곡물터미널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시설이다.

3.2. 우크라이나 곡물공급여건 분석

3.2.1. 경쟁력 있는 생산기반 확보

우크라이나는 전체 국토의 71%인 42.8백만 ha가 농지이며, 이중 76%인 32.5백만 ha만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어, 향후 10백만 ha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농경지 중 76%인 24.7백만 ha가 흑토로 비옥한 농지를 확보하고 있어, 생산성 향상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2017년 곡물생산량은 6,500만 톤 수준이며, 이중 밀 2.6천만 톤, 옥수수 2.5천만 톤으로 약 78%를 차지한다. 곡물생산에 해바라기, 유채 등 유지작물과 감자를 포함하면 식량작물 생산량은 약 1억 톤에 달한다.

표 3. 우크라이나 주요작물별 생산량

단위: 천 톤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106	2017
밀	16,327	10,719	18,969	16,185	22,332	15,276	22,379	24,311	26,532	26,043	26,158
감자	14,972	19,883	19,246	18,570	24,824	23,025	22,259	23,369	20,839	21,750	22,208
보리	9,633	6,871	8,975	8,484	9,097	6,936	7,561	9,046	8,288	9,436	8,285
옥수수	3,391	3,848	7,166	11,395	22,783	20,196	30,950	28,649	23,328	28,075	24,669
대두	22	64	612	1,680	2,264	2,410	2,774	3,881	3,930	4,277	3,899
귀리	1,116	881	790	458	505	629	467	612	489	500	471
메밀	340	480	274	133	281	238	179	167	128	176	180
호밀	1,207	968	1,054	464	578	646	638	478	391	392	508
조	267	426	140	117	278	157	102	177	213	190	84
해바라기		3,457		6,771			11,050		11,181	13,627	12,236
유채		132		1,470			2,351		1,737	1,153	2,195

자료: 우크라이나 통계청

현재 우크라이나의 농업생산성은 옥수수 3.7%, 밀 2%, 보리 2.2%, 유지류 4.3%, 유채 7.6% 등 높은 생산성 향상을 보이고 있으나, EU,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향후 관수시설의 확보, 비료, 농약 등 주요 투입재 사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단수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1)

표 4. 주요국별 곡물 단수 비교, 2017

단위: 톤/ha

구분	우크라이나	EU	러시아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호주	평균
밀	4.0	5.7	3.1	3.1	3.0	3.1	2.68	1.72	3.42
보리	3.3	4.7	2.6	3.9	3.5	3.8	2.86	2.1	2.98
옥수수	6.0	6.9	5.1	10.8	9.9	8.1	5.4	n.a.	5.62
해바라기씨	2.1	2.0	1.5	1.5	1.9	2.1	1.5	1.1	1.8
유채씨	2.8	3.3	1.5	1.6	2.2	n.a.	n.a.	1.2	2.0
대두	2.0	2.8	1.5	3.3	2.9	3.0	3.1	n.a.	2.8

자료: USDA

3.2.2. 지속적으로 수출시장지배력 확보

우크라이나는 2016/2017기준 곡물수출시장에서 밀 9%, 보리 18%, 옥수수 14%, 해바라기 12%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옥수수의 경우 최근 시장점유율이 18% 수준으로 높아졌다.

표 5. 국제곡물 및 유지작물시장에서의 우크라이나의 비중, 2017

구분	밀	보리	옥수수	해바라기	유채	대두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량 (백만 톤)	17.0	5.3	19.7	0.2	1.0	2.9
세계 곡물 수입시장 (백만 톤)	179.3	29.8	141.9	2.2	16.5	142.8
우크라이나 시장점유율 (%)	2016/17	9	18	14	12	6
	2015/16	10	17	12	9	10
	2014/15	7	11	15	4	14
	2002/03	6	4	1	19	1

자료: USDA

1) 우크라이나의 농업컨설팅전문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2021년까지 곡물생산량(유지류 포함)은 2017년 79.2백만 톤에서 107.0백만 톤으로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18년에는 밀과 옥수수 각각 1,800만 톤과 430만 톤의 보리를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 곡물의 50% 이상이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우크라이나 곡물 생산과 수출 현황

단위: 백만 톤, %

구분	2017년 생산	비율	2017/18 수출량	비율
총 곡물	61.9	100.0	41.0	100
밀	26.2	42.3	18.0	44.0
보리	8.2	13.2	4.3	10.4
옥수수	24.7	40.0	18.0	44.0
기타 곡물	2.8	4.6	0.7	1.6

자료: 우크라이나 농업식품부

유지 종자는 농작물 재배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문이며, 주요 작물에는 해바라기, 대두 및 유채가 포함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가공되지 않은 해바라기 종자에 대한 수출 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해바라기유 생산국과 수출국이 되었다. 또한, 유지 종자의 현지 가공 촉진을 위하여 2017년 12월 의회에서 세금 법안 개정안을 채택하고, 대두 및 유채유를 포함한 원료 종자 수출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환을 일시 중단하였다.

표 7. 우크라이나 유지 종자 생산과 수출 현황

단위: 백만 톤, %

구분	2017년 생산	비율	2017/18년 수출량	비율
총 유지 종자	18.3	100.0	4.3	100
대두	3.9	21.3	2.2	51.2
유채	2.2	12.0	1.9	44.1
해바라기	12.2	66.7	0.2	4.7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주요 판매시장은 EU, 아시아, MENA(중동 및 북아프리카), 그리고 동 지중해에 위치한 터키,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등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보리의 주 소비국이며, 수입 보리의 주 용도는 낙타의 사료 원료이다.

2017년 아시아(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시장에서는 EU를 제치고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수입 1위를 차지하였다.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품질 또한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은 중간 품질(*medium-quality*)의 식용곡물을 수입하는 반면, 유럽 수출은 주로 사료용이다. 자국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EU의 수입 쿼터 또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크라이나산 오일시드의 주 판매 시장은 EU이며, MENA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CIS 국가로의 수출은 전체의 약 3% 수준이며, 동남아시아 수출은 크게 줄어든 상태이다.

EU 수출의 대부분은 북유럽으로의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진다. 비록 상당한 규모의 유지박류가 폴란드로 수출되고 있고, 육로접근성이 좋은 국가들(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이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일시드의 육로 수출은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하며, 대부분 유채씨로 구성되어 있다. 육로를 통한 CIS 국가들향 해바라기씨 수출은 전체의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터키는 우크라이나산 오일시드(대두)의 가장 큰 수입국이며, 네덜란드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3.3. 우크라이나 곡물사업 진출의 SWOT 분석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는 풍부한 농지자원 뿐만 아니라 청정자연환경 보존, 육로, 수로, 해상수송 등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반면, 농업관련 물류 및 유통 인프라 시설은 부족하고, 생산 및 수확 후 관리기술의 취약으로 품질 경쟁력이 낮은 약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정치 및 경제 불안정은 현지 진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곡물사업의 경험이 적은 국내 기업의 경우 전후방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나 시장개척 등은 메이저기업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북방경제협력 확대 구상과 국내 식량의 안정적 반입과제 등을 고려할 때, 현지진출은 기회요인이 될 것이다.

표 8. 우크라이나 곡물사업 추진의 SWOT 분석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경지 76% 흑토지대로서 높은 비옥도 ■ 미개발 토지지원 풍부 ■ 청정 자연환경 보존(유기농 생산기반 확보) ■ 육로, 수로, 해상수송의 높은 접근성 ■ 수출 물량 지속 증가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관리 물류 및 유통인프라 시설 낙후 ■ 내수시장의 정체 ■ 곡물품질경쟁력 저위
기회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곡물의 높은 가격경쟁력 ■ 국제곡물시장 확대 전망 ■ 북방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활용 기회 ■ 식량위기시 안정적인 국내 반입기반 확보 ■ non-GMO, 유기농곡물 잠재 수요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정치 및 경제 불안정 존재 ■ 곡물 메이저기업 대비 곡물사업 경험 부족 ■ 전후방분야 투자 확대 리스크

4.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곡물터미널 사업 현황과 발전방향

4.1. 곡물 수출 항만 현황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9년 우크라이나의 물류회사인 오렉심(OREXIM)이 미콜라이프항에 건설 중인 곡물터미널 지분의 75%를 인수하여, 우리나라의 해외 1호 곡물수출기지를 확보하였다. 곡물터미널이 위치한 미콜라이프항은 우크라이나의 4대 주요 곡물 수출항 중 하나이며, 곡물 생산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장점을 지니고 있다. 미콜라이프항은 2017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량의 22.3%를 차지해, 가장 많은 곡물을 수출한 항구이다.

표 9. 우크라이나 4대 항구 현황(2017/18기준)

항 구	곡물 수출량 (단위: 백만 톤)				점유율(%)
	'14	'15	'16	'17	
미콜라이프	6.7	8.5	9.1	8.8	22.3
유즈니	9.1	9.7	8.2	8.7	22.0
체르노모르스크	4.6	5.1	8.0	8.1	20.4
오데사	6.6	8.6	8.2	7.6	19.1
4개항 합계	27.0	31.9	33.5	33.2	83.8
총 수출량	39.4	41.8	46.0	43.9	

자료: Tebodin CDD Report, USDA, LBH Vessel Line Up

그림 1. 우크라이나 곡물 4대 수출항 위치



미콜라이프(Mykolaiv), 오데사(Odesa), 유즈니(Yuzhnyi)와 체르노모르스크(Chornomorsk)는 곡물 취급물량 측면에서 대략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4개 항구의 물동량을 합하면 바다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및 운송의 84%를 차지한다. 우크라이나 동쪽의 2개 항구, 마리우폴(Mariupol)과 베르디안스크(Berdiansk)항은 2014년부터 분쟁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로 상황이 악화되었다. 그러나 분쟁 이전부터 이 항구들은 얇은 수심으로 시장점유율을 잃어가고 있었다. 항만별 곡물 수출선적능력을 보면, 미콜라이프(Mykolaiv)항이 14백만 톤으로 가장 많고, 유즈니(Yuzhnyi)항은 취급규모에 있어 2위이다. 그러나 유즈니항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곡물 환적과 관련해서 17백만 톤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다.

4.2. 터미널 현황

현재 미콜라이프항에 건설 중인 터미널 엘리베이터의 주요시설은 6만 톤 저장능력의 곡물엘리베이터 1기와 8.2만 톤 저장능력의 사일로 13기를 보유하여 총 14.2만 톤의 곡물저장이 가능하다. 반입시설은 트럭입고장 5개소, 철도입고장 2개소로 총 7개소를 갖추고 있다. 이밖에 실험실 및 샘플실과 사무실이 있다.

표 10. 터미널 엘리베이터 시설현황

항 구	시설	수량	비고	
반입	철도입고장	2개소	일일5,400톤 하역가능	
	트럭입고장	5개소	일일7,150톤 하역가능	
저장 (총 142천 톤)	사일로	9천 톤급	8기	총 72천 톤 저장 가능
		6천 톤급	1기	총 6천 톤 저장 가능
		1천 톤급	4기	총 4천 톤 저장 가능
	곡물엘리베이터	1기	총 60천 톤 저장 가능	

자료: 포스코인터내셔널

수출곡물은 컨베이어를 통해서 미콜라이프항 10번 선석으로 운송되며, 적재기로 선적한다. 적재기는 시간당 최대 1,000톤 선적이 가능하다. 곡물터미널은 2019년 9월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이며, 연간처리능력은 총 2.5백만 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표 11. 시설(선석10번) 현황

구분	현황	최대수용선형	비고
길이	208m	수프라막스	11번 선석 활용시 파나마스 수용 가능
폭	32.0m	파나마스	수프라/파나마스 선형폭 32m 이상 핸디선형폭 32m미만
수심	10.3m	파나마스	선적가능량: 약 40~45천 톤
적재기	1대	파나마스	시간당 800~1,000톤 선적가능
야적장	19,000m2	-	

자료: 포스코인터내셔널

4.3. 발전방향

1) 곡물터미널 운영체계 조기 안정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곡물수출터미널을 직접 운영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OREXIM 측의

경영진과 역할분담을 통해 긴밀하게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산지로부터의 원활한 물량조달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경쟁력있는 원물 확보를 위해서는 최적화된 구매시스템을 확보하고, 산지 비축 관련 내륙 사이로 및 드네프로강 강변 사이로, 리버 터미널, 바지선, 철도 웨건 사업 등 인프라 구축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 판매 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

한국기업의 우크라이나로부터의 곡물 수입은 대부분 사료용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향후 전분당용, 착유용 등 식용가공용 옥수수, 콩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해바라기 수출의 52%를 차지할 정도로 해바라기 주요 수출국이다. 향후 해바라기유의 기능성과 유용성이 과학적으로 규명된다면, 국내 수요 확대가 예상되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식품제조업체나 사료업체는 우크라이나의 풍부한 곡물자원을 현지에서 가공하여 전분당, 제분, 사료 등을 생산하여 EU 및 MENA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국가식량비축기지로서의 활용 검토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은 매년 1,500만 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식량안보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와 미래 통일 한국의 식량 안보를 고려할 때는 더욱 의미가 있다.

세계식량위기 발생시 곡물수출터미널을 통해서 필요한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국내 반입도 가능하다. 물론 비상사태 발생 시 수출국의 수출봉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터미널을 소유하고 있고 현지 곡물 구매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비상시 보다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 식량위기 시 정부가 원하는 물량을 해외로부터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본 곡물터미널을 국가식량비축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쌀, 콩 등 주요 곡물의 해외조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나 해외농업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농어촌공사가 곡물

터미널 지분의 일부를 확보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밖에도 사료곡물의 주 수요그룹인 사료협회나, 농협 등 민간부문에서도 지분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아무쪼록 우크라이나에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설립한 해외곡물터미널을 통해 한국의 식량안보 및 연관 식품산업으로의 확장이 잘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향후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길 기대한다.